

전북교육 대전환 2년, 교사에게 듣는다

서 교육감, 교사들과 소통
도내 교사 80여명 참여
AI 기반 미래교육·수업혁신
교육활동 보호 등 의견 나뉨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전북교육 대전환 2년' 교육감, 교사에게 듣는다'에 참여해 현장 교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2년간의 전북 교육 변화와 향후 방향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9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2층 강당에서 열린 '전북교육 대전환 2년' 교육감, 교사에게 듣는다'에 참석, 현장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80여 명이 참가해 △AI 기반 미래교육과 수업혁신 △교육활동 보호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력신장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효과성 있는 학력신장 방안, 체감도 높은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질의하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AI 기반 미래교실 환경 구축으로 수업 혁신을 이끌고, 수업의 본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물었다.

또 전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올바르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함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부안의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새로운 교사를 교무학사지원교사로 배치하는 것은 취

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좀 더 합리적인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 추진이 사교육을 더욱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특히 '변호사동행서비스' 등

을 통해 교권전담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전북의 교육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공감 토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은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전북교육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늘봄실무사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10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늘봄실무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될 직종으로 신규 채용과 직종 전환을 통해 305명을 선발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과 교사의 늘봄 행정업무 이관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수는 늘봄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늘봄교실 운영의 이해, 방과후학교 지침 안내, 늘봄실무사 운영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청렴교육, 행정업무 이해, 학교문화 이해, 늘봄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2학기에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봄실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늘봄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 취업 증진·연구 교류

국립군산대-미래생명자원 '맞손'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주)미래생명자원(대표 김성진)은 9일 오전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학생 취업 증진과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미래생명자원 김성진 대표와 김이준 책임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주임 김용태 교수와 홍성철 교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공 및 체험형 인턴과 인턴 채용, 식품소재, 기능성식품, 사료 관련 상품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공유, 연구원, 기술 및 연구개발 시료의 교류, 상호 인프라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의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에너지신산업 이끌 우수인재 키운다

전북대, 오픈캠퍼스 운영 대학-산업체, 인력양성 과정 전기설비 실습 2개 과정으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하는 오픈캠퍼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픈캠퍼스는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과 RIS대학교육혁신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인력양성과정과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전기설비 실습 중심의 '전기안전 미리 캠퍼스'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견학, 실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실무적인 기술 습득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2학점이 부여된다.

먼저, 에너지신산업 인력양성과정은 8~12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진행된다. 전북대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 및 서울대, 강원대, 부산대, 고려대, 한양대, 경남정보대 등 6개 대학 40명이 참여한다.

교육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E2 이노베이션, OCI, 삼성 SDI, 두산 퓨어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전기안전, 2차전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전북대학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하는 오픈캠퍼스를 운영한다.

을 전하고, 최신 동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소, 고창 전력시험센터, 두산 퓨어셀, ESS 안전성 평가센터 등을 견학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및 탄소 저감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러 전기안전 미리 캠퍼스 과정은 8월 5~8일 정읍 전기안전교육원에서 운영된다. 전북대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 45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는 전기 안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전기 안전 규정 및 법규 준수, 잠재적 위험의 인식과 대응, 사고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주제로 다룬다. 또한 전기기기 및 시스템의 안전한 설치, 유지 및 관

리에 필요한 기술과 실습, 견학 등의 교육도 이뤄진다.

손정민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관련 분야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에너지 분야 오픈캠퍼스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북자치도가 육성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발전 및 에너지 관련 교육 주제 간 협력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이후에도 태양광 모듈 및 2차전지 제작 교육인 '솔라캠프', 에너지신산업 관련 특강(에너지신산업세미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반도체소부장사업, 한국연구재단 우수성과 선정

'지산학 융합포럼' 통해 지역 협력 이끌어내

전북대학교 반도체소부장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서 개최한 '2023 지산학 융합포럼'이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지산학 매거진 우수성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사업단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산업체, 대학 등과 함께 지난 2월 지산학 융합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을 통해 학생 취업 역량 강화 및 반도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과 현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지산학 협력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반도체 산업 및 인재 양성 확대를 모색해 왔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컨소시엄 5개 대학(성균관대, 단국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영진전문대) 200여 명의 학생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 및 관계자, 도내 24개 산업체가 참석해 지자체-산업체-대학 간 협력을 맺었다.

이에 사업단은 지역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 포럼 성과는 한국연구재단이 발행하는 지산학 매거진에 실려 우수성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반도체소부장혁신융합대학사업단 이종열 사업단장은 "우리 사업단의 지산학 협력 활동이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지역 반도체 산업을 살찌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자체 및 산업체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반도체 협업체 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사업단은 지역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은성 기자

실무자·학생 위한 저작권법 이론

전주대 김시열 교수, '저작권법' 출간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김시열 교수(로컬벤처학부·사진)가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와 공동 집필로 법률이론서 '저작권법'을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문화산업이 발전해가며 저작권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저작권을 다루는 실무자와 법을 또는 관련 산업의 영역에서 저작권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이론서 개발을 목적으로 발간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그 이론적 논의가 매우 발전해 왔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 저작권법의 주요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이론서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법이론적 발전 상태와 산업 실무자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집필진은 그간 실무를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내용을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충실한 이론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사례,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한 논란, 복권의 저작권법, 저작권 금융과 크라우드펀딩, 뮤직 카우 사례 등 최근 많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함께 다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인 로컬벤처학부장 김시열 교수는 "저작권법은 더 이상 문화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이론의 균형적 이해를 얻고, 나아가 업무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사 인성교육 역량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10~12일 '제1차 인성교육'

초등 교사·중등 교사·인성교육 강사단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0~12일까지 3일간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사와 강사단을 대상으로 제1차 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날은 초등 교사, 둘째 날은 중등 교사, 마지막 날은 인성교육 강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에 적합한 인성교육 교수·학습 체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적용 방안 등을 주제로 실천 중심의 수업 나눔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차 연수에 이어 하반기에는 학교급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과 일반화를 위한 2차 연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단순한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덕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관내 유·초·중·고교 학부모로 구성된 커뮤니티 '온맘' 창단식을 개최했다.

전주교육지원청, 학부모 커뮤니티 '온맘' 창단

응급처치 대응 능력 강화·학교 교육 봉사 등 나서

봉사활동 통한 자아실현 위한 전북 교육시책 반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지난 8일 관내 유·초·중·고교 학부모로 구성된 커뮤니티 '온맘'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 응급처치 대응 능력 강화 및 각급 학교 응급처치 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학부모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으로는 △2주간의 응급처치 강사 양성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따른 강사 활동 △자녀 학교 인근 학교 등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강사

봉사활동 참여 등이 있다.

특히 단순 교육 위주의 동아리가 아닌 봉사활동을 통한 학부모 자아실현을 위한 전북 교육시책을 반영한 것이다.

김정기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오늘 창단식을 시작으로 학부모 간 다양한 정보 공유로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